

## ‘텅 빔’에서 ‘충만’으로

— 우리말 성서 번역 재고(룻 1:9; 2:7; 3:16) —

배희숙\*

### 1. 도입

네 장으로 된 짧은 책 룻기는 그 분량에 비해 다양한 읽기 관점을 제공해 준다. 베들레헬을 무대로 하면서 이야기 끝에서나(4:17b) 계보에서(4:18-22) 다윗을 언급하기 때문에 다윗 관점으로 읽는 것은 자연스럽다. 국내의 연구는 특히 사사 시대 언급으로 시작하고(1:1) 베레스에서 다윗까지의 계보(4:18-22)로 끝나는 문학적 구조에 주목한다. 김지찬은 이를 시대적 전환을 말해주는 해석학적 틀로 간주하고, 룻기는 평범한 사람들의 헤세드를 통해 텅 빈 이스라엘이 채움으로 바뀌는 “해피엔딩의 구속사”로서 “사사시대에 피폐해진 이스라엘의 공동체 삶이 어떻게 다윗 시대에 풍요롭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이스라엘 이야기라고 한다.<sup>1)</sup> 엄태항도 여기서 “사사시대 기근(비위짐)은 다윗 왕가 탄생으로 채워진다”는 것과 “다윗 시대를 채워짐의 시대로(의) 암시”를 관찰한다.<sup>2)</sup> 반면 기민석은 룻 이야기가 이

\* Universität Münster에서 구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장로회신학대학교 구약학 교수. [hsbae@puts.ac.kr](mailto:hsbae@puts.ac.kr). 이 논문은 ‘구약성서에 나타난 약함의 신비’라는 주제 아래 룻기를 다룬 “베들레헬 성문에서 - 새 시대의 여명 (룻 1-4장)”, 『기독교사상』 776 (2023. 08), 120-135을 확장한 것으로 2023년 장로회신학대학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20230831-001).

1) 김지찬, 『룻기,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본문주해에서 설교까지』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8), 81, 718, 730-731.

2) 엄태항, “룻기 도입부(1:1~5)의 기근과 모암 이주 주제가 룻을 가모장(matriarch)으로 서술하는 문학적 기능성”, 『성침논단』 13 (2022.8), 137. 그러나 이야기 부분에 대한 주석에서는 이와는 달리 이미 회복된 이상적인 공동체를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아래 92쪽 참고.

스라엘이 극도로 하나님께 신의를 지키지 못하였던 시대를 배경으로 하면서도 다윗의 족보로 끝맺음으로써 “이스라엘의 민족주의와 엘리트주의를 조롱”한다는 다른 해석을 제시한다.<sup>3)</sup> 다윗 관점으로 볼 때 룯기는 무엇보다도 유다 사람과 결혼한 모압 여인 룯이 유다 베들레헴에 정착하고 보아스와 결혼하며 다윗의 증조모가 되었다는 이야기로서, 모압인을 “십 대뿐 아니라 영원히”<sup>4)</sup> 이스라엘 회중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금하는 율법 규정(신 23:4-7)을 정면으로 거스른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공히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 사회의 주된 문제로 이방인과의 연혼 문제를 거론하는데(스 10장; 느 13장) 특히 느헤미야 13장은 신명기 총회법을 지시하며 이방인, 특히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금지한다(느 13:1-3, 23-27). 따라서 룯기는 포로기 이후 시대의 이방인 문제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책으로 해석된다.<sup>5)</sup>

룯기는 성경의 다른 책에 비해 여성의 삶을 다루며 사건을 일관되게 여성의 관점에서 서술한다는 점에서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우는 여성들의 이야기로도 읽힌다.<sup>6)</sup> 이때 룯기의 중심인물이 누구인지가 분명하지 않다.<sup>7)</sup> 1장과 4장에서는 나오미가, 2장과 3장에서는 룯이 각각 무대의 중심을 차지하며 독립적으로 행동하고, 한 여자가 중심에 있을 때 다른 여자는 부수적 인물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을 관찰한 브렌너(A. Brenner)는 룯기는 본래 개별적으로 존재한 민담과 같은 ‘나오미 이야기’와 ‘룯 이야기’가 결합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sup>8)</sup> 주지하듯이 룯기는 나오미의 텅 빈 인생이 채워지는 과정을 전해 준다. 이 점에서 나오미와 룯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 왜냐하면 1장에서 나오미의 한탄을 통해 드러난 ‘텅 빔’은 2장과 3장의 주요 인물인 룯을 통해 ‘충만’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룯기에는 구약성경의 다른 본문을 암시하거나 지시하고 있어서 정경적 관점에서 상호본문읽기가 가능하다. 룯기에는 특히 창세기에 대한 암시가 많다.<sup>9)</sup> 엽태항은 “장소(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생각(비움/불행에서 채움/

3) 기민석, “다윗 인생의 서곡, 룯기와 신의(信義)”, 『생명과학』 13 (2015), 13-34.

4) 베레스의 계보(4:18-22)의 열 세대는 신명기법을 의식한 의도적 구성으로 볼 수 있겠다.

5) I. Fischer, *Rut*, HThKAT (Freiburg; Basel; Wien: Herder, 2001), 61-65, 75.

6) I. Fischer, “Rezeption von Recht und Ethik zugunsten von Frauen: Zu Intention und sozialgeschichtlicher Verortung des Rutbuches”, M. Oeming, ed., *Theologie des Alten Testaments aus der Perspektive von Frauen*, Beiträge zum Verstehen der Bibel 1 (Münster; Hamburg; London: LIT, 2003), 109-125; I. Fischer, *Rut*, 73-74.

7) 누가 중심인물인가에 관하여 J. Dekker and A. H. Dekker, “Centrality in the Book of Ruth”, *VT* 68 (2018), 41-50 참고.

8) A. Brenner, “Naomi and Ruth”, *VT* 33 (1983), 385-397.

9) E. A. Jones III, *Reading Ruth in the Restoration Period – A Call for Inclusion*, LHB/OTS 604 (London et al.: Bloomsbury, 2016), 61-118 참고.

축복으로), 그리고 시대(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의 전환”을 나타내는 룯기의 주제가 족장전승과의 대화를 통해 나타난다는 점을 관찰한다. 창세기 19장에 비추어보면 룯기는 “모압 여성 룯을 통해 부정적인 과거에서 회복된 새로운 공동체를 긍정적으로 부각”하고, 창세기 38장에 비추어보면 유다와 다말의 “불륜으로 가계가 이어지는 것과는 달리” 룯과 보아스 사이에서는 “부끄러운 것 없는 유다의 새로운 혈통이 탄생”하였음을 말하며, 또 룯기의 도입구에 나오는 기근과 모압 이주 모티브는 “아브라함 전승과 대화하면서 시대 전환을 나타내는 문예장치”로서 한편으로는 “룯을 아브라함과 같은 가모장(matriarch)으로 제시”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베들레헴 공동체를 사사시대와는 질적으로 다른 “회복된 공동체”로 제시한다는 것이다.<sup>10)</sup> 그의 주장에 따르면 룯기는 이미 회복된 이상적인 공동체를 말하고 있지 결코 “전환”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모순이 나타난다.

룯기는 사사기 마지막 몇 장과 동일한 시대적 배경과 근접한 지리적 공간, 그리고 유사한 문학적 구성요소를 공유하므로, 사사기와의 비교는 새로운 신학적 통찰을 제공한다.<sup>11)</sup> 박유미는 사사기 19-21장과 비교함으로써 “룯기는 사사기의 마지막 분위기와는 완전히 다르게 은혜와 환대가 넘치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으며, 두 이야기는 “사사시대라는 시대적 배경과 베들레헴이라는 장소적 배경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매우 대조적인 분위기를 보여준다.”<sup>12)</sup>고 결론 짓는다. 두 공동체의 차이를 “여성에 대한 관점과 태도에서” 찾고, 나아가 여성에 대한 관점이 곧 공동체를 폭력적-비윤리적 사회 또는 인격적-윤리적 사회를 만드는 갈림길이 된다는 그녀의 지적은 적절할 것이다.<sup>13)</sup> 그러나 전체 이스라엘 이야기(삿 19-21장)와 ‘집’을 세우는 여자들의 이야기(룯 1-4장)라는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여성의 이름과 적극적인 의사 표현의 유무, 그리고 여성이 주체냐 객체냐를 기준으로 두 공동체를 규정하는 것은, 두 본문에 나타나는 차이점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것으로 보인다. 아브너리(O. Avnery)는 두 이야기는 경계에 있

10) 엄태항, “룯기 도입부(1:1~5)의 기근과 모압 이주 주제가 룯을 가모장(matriarch)으로 서술하는 문학적 기능성”, 129-131.

11) E. F. Campbell, Jr., *Ruth*, AB 7 (New York et al.: Doubleday, 1975), 35-36; M. S. Moore, “To King or Not to King: A Canonical-Historical Approach to Ruth”, *BBR* 11:1 (2001), 27-41는 “왕이 없는” 동일한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사사기 17-21장과 룯기를 대조해 봄으로써 비교할 만한 상황에서 등장인물들의 반응이 근본적으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강조한다.

12) 박유미, “여성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한 사사기 19-21장과 룯기 비교 연구”, 「구약논집」(2020), 77-107; W. A. Gage, “Ruth upon the Threshing Floor and the Sin of Gibeah: A Biblical Theological Study”, *WTJ* 51:2 (1989), 369-375; F. J. Geiser, “Which Bethlehem? A Tale of Two Cities”, *Word & World* 33:4 (2013), 349-356.

13) 박유미, “여성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한 사사기 19-21장과 룯기 비교 연구”, 102.

는 인물에 대한 두 가지 유형의 사회적 행동을 제시하는 동시에 사회적 수용 문제를 다루며, “룻기는 문턱을 넘어 평화롭게 밤을 보내려는 시도에 실패하고 문밖에 남겨진 첩의 끔찍한 이야기에 대한 희망적인 대안”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은 보아스 한 사람에게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도 지적한다.<sup>14)</sup> 유연희는 낭만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착한 읽기”의 일반적인 흐름을 거슬러 룻기를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생존기로 읽어내는데 이를 통해 베들레헬 공동체의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심지어 나오미조차도 룻에게 그리 호의적이지 않음을 관찰한다.<sup>15)</sup> 그러니까 룻기에 나타난 베들레헬 공동체가 처음부터 완성된 이상적인 사회상을 보여주는지는 논의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본고는 세 구절(1:9; 2:7; 3:16)에 대한 우리말 성서 번역을 재고하면서 룻기의 이해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첫째, 1:9는 나오미가 모압에서 베들레헬으로 귀향하는 도중에 두 며느리에게 하는 말로서, 나오미의 ‘텅 빔’은 가족과 물질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정신과 신앙에까지 이르는 총체적 상실을 말해 주며, 이로써 룻기의 읽기 방향을 지시해 준다. 두 번째 검토할 2:7은 보아스의 밭에서 일꾼 감독관이 보아스에게 룻에 대하여 하는 말로서, 베들레헬 사회가 이상적인 사회가 아니라 특히 이방여인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곳이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3:16은 나오미가 룻에게 한 말로서, 나오미의 텅 빈 상태가 바로 룻을 통해 채워진다는 사실을 확증해 준다. 이로써 본고는 룻기가 에스라-느헤미야에 나타나는 포로기 이후의 이방인 연흔 문제에 대한 반응이라는 해석 선상에서 이상적인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다는 것을 덧붙이고자 한다.

## 2. 번역 재고

### 2.1. 룻기 1:9a: 축복 기원인가 조언인가?

1:8-9a는 룻기에 나타나는 첫 대화의 일부이다. 모압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여인 나오미가 베들레헬으로 돌아가고자 유다 땅을 향해 가는 도상에

14) O. Avnery, “On the Threshold: Liminality in the Stories of the Concubine of Gibeah and Ruth”, *JSOT* 46:2 (2021), 230-248.

15) 유연희, “글로벌시민 룻의 달콤살벌한 성공기”, 『한국기독교신학논총』 62 (2009), 57-78. 같은 관점으로 A. Brenner-Idan, “From Ruth to the ‘Global Woman’: Social and Legal Aspects”, *Interpretation* 64:2 (2010), 162-168 참고.

서, 동행하는 두 며느리들에게 친절로 돌아갈 것을 촉구하며 하는 말이다. 표현의 차이는 있지만 이 대목의 우리말 성서 번역본은 모두 두 문장의 축복으로 번역한다. 『개역개정』을 보자.

8a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8b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9a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8b절은 며느리들의 과거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을 구하는 축복이며, 9a절은 그들의 미래에 베푸실 축복이다. 대부분의 현대 번역(NRS, ESV, JPS 등)이나 개인 번역도 이와 같다.<sup>16)</sup>

말은 생각의 반영이다. 나오미의 며느리 축복은 분명히 그녀의 하나님 이해로부터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일레는 나오미가 야훼를 며느리들의 선행에 헤세드로 보응해 주시고 며느리들에게 위로 받을 곳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한다.<sup>17)</sup> 이충열은 6절에서 ‘일어나다, 떠나다, 걸어가다’는 세 개의 동사로 기술하는 나오미의 행위를, 출애굽기 12:31과 사무엘상 23:13의 용례를 근거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하심에 대한 반응”을 나타내며 베들레헴으로의 귀향은 “믿음에 기초한 나오미의 신앙적인 결단”이라고 해석한다.<sup>18)</sup> 일반적으로 가까운 가족의 죽음 경험은 심리적 정신적 손상을 초래하여 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 룯기의 첫 다섯 구절은 남편과 두 아들의 죽음 뒤에 홀로 남겨진 과부 나오미의 기막힌 사연을 전한다. 나오미는 ‘밥집/쌀집’<sup>19)</sup>이라는 뜻을 가진 도시 베들레헴에 먹을 것이 없어, ‘(나의) 하나님은 왕’이라는 이름을 가진 남편 엘리멜렉을 따라 두 아들과 함께 모압 땅으로 가 거류하는데<sup>20)</sup> 남편은 죽고, 모압

16) E. F. Campbell, Jr., *Ruth*, 60; R. L. Hubbard, *The Book of Ruth*, NICOT (Grand Rapids, MI: William. B. Eerdmans, 1988), 98; T. Linafelt, *Ruth*, Berit Olam (Collegeville, MN: Liturgical Press, 1989), 9; I. Fischer, *Rut*, 130; 이사야, “모압 여인의 하나님: 룯기 1:1-22에 대한 주석적 연구”, 『신학논단』 69 (2012. 7), 225, 230; 김지찬, 『룯기,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본문주해에서 설교까지』, 151-152 외.

17) 이일레, “룯기 1:8 하반절에 나타난 룯의 선행의 성격과 성격과 כְּאִשְׁרָא עֲשִׂיתָם의 우리말 번역을 위한 제언: 룯기 3:10의 חֶמֶד 이해를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31 (2012. 11), 37. 같은 해석으로 김지찬, 『룯기,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본문주해에서 설교까지』, 152.

18) 이충열, “나오미의 신앙과 좌절”, 『신학사상』 197 (2022. 06), 63-86, 68.

19) ‘베들레헴’은 문자적으로 ‘빵집’(house of bread)이다. 고대 이스라엘의 주요 농작물은 보리와 밀이다. 그러니까 빵이 주식이다. 이 점을 고려한다면 ‘빵집’보다는 ‘밥집’이나 ‘쌀집’이 히브리어 베들레헴에 상응한다.

20) 두 아들의 이름 말론은 ‘병골’을, 기론은 ‘약골’을 의미한다. E. Zenger, *Das Buch Ruth*,

여자와 결혼하여 십여 년 살았던 그녀의 두 아들마저도 자식을 남기지 못한 채 죽는다. 5b절은 이러한 상태를 강조하여 서술한다. “그녀만 (텅그러니) 남았다. 자식도 남편도 없이”(사역).<sup>21)</sup> 나오미가 연달아 겪은, 삶의 부정적 경험은 그녀의 신앙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하는 말은 그녀의 신앙적 트라우마를 잘 드러내 준다.

8절은 두 개의 명령형(가라, 돌아가라)으로 시작하여 야훼를 주어로 하는 짧은 미완료형(Jussive)으로 끝난다. 9절도 8절과 같은 형태로 시작하지만 동사의 목적어가 없으며 명령문이 뒤따른다.<sup>22)</sup> 9a절은 단축 미완료형과 명령형으로 구성되어 있다(וַתֵּן יְהוָה לָכֶם וּמִצָּאֵן מְנוּחָה אֱשָׁה בֵּית אֲשָׁרָה). 홀스테드(R.D. Holmstedt)는 명령형 다음에 미완료 단축형이 오는 구문은 일반적이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9aβ절을 파격 구문으로 간주한다.<sup>23)</sup> 즉 9a절은 미완성의 기원문과 명령문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쉬퍼(J. Schipper)는 이 파격의 수사적 기능을 살핀다. 그에 따르면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종교적 관습에 따라 하나님의 복을 구하다가 갑자기 말을 돌려 매우 현실적이며 실질적인 조언으로써 모압으로 돌아가도록 설득한다. 이를 반영하면 9a절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셔서 ... (아니다)<sup>24)</sup> 너희는 각자 남편 집에서 위로를 받도록 해라”는 의미가 된다. 나오미는 며느리들의 안정된 삶은 야훼의 개입이 아니라 “남편의 집”이라는 공간에서 가능한 것이므로 며느리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말하며 친정으로(“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갈 것을 권하는 것이다.<sup>25)</sup> 야훼의 축복을 구하다가 갑자기 매우 현실적인 조언을 하는 나오미의 모습은

---

ZBK.AT 8 (Zürich: TVZ, 1986), 34. 이로 미루어 볼 때 엘리멜렉의 이민은 병약한 아들들을 위한 고육지책이었던 것 같다. C. P. Baylis, “Naomi in the Book of Ruth in Light of the Mosaic Covenant”, *Bibliotheca Sacra* 161 (2004), 415. 흉년에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이삭은 블레셋의 그랄로 가서 거류하며 각각 아내를 누이로 속이며 살길을 모색하기도 했지만 그들의 이민 생활은 물질적 풍요로 이어진다(창 12:1-20, 26:1-13)는 사실도 엘리멜렉의 모압 이주를 부정적으로 볼 수 없게 한다.

- 21) 룯과 오르바, 두 며느리가 있음에도 이렇게 기술했던 것은 여자의 삶이 남자에 의해 규정되는 당시 가부장 문화에서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
- 22) E. F. Campbell, Jr., *Ruth*, 66; F. W. 부쉬 지음, 정일오 옮김, 『룯기·에스터』, WBC (서울: 솔로몬, 2007), 132; R. D. Holmstedt, *Ruth: A Handbook on the Hebrew Text* (Waco: Baylor University Press, 2010), 75.
- 23) R. D. Holmstedt, *Ruth: A Handbook on the Hebrew Text*, 75.
- 24) J. Schipper, “The Syntax and Rhetoric of Ruth 1:9a”, *VT* 62 (2012), 642-645; J. Schipper, *Ruth.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AB 7D (New Haven;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16), 90-91에 따르면 나오미의 두 말 사이에 ‘Oh, forget it!’의 의미가 들어있다.
- 25) J. Schipper, “The Syntax and Rhetoric of Ruth 1:9a”, 644; D. N. Fewell, “Space for Moral Agency in the Book of Ruth”, *JSOT* 40:1 (2015), 83.

바로 인생의 쓴 경험의 반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어지는 나오미의 권고는 훨씬 더 현실적이고 실용적이다. 룯이나 오르바에게는 살아 있는 남편의 형제가 없으며, 설령 나오미에게 남편 엘리멜렉의 형제가 있어 재혼을 할 수 있다 치더라도 자식을 낳기에는 너무나 늙었기 때문에 ‘형사취수제’라는 사회구제책도 무용하다는 것이다(1:11-13a). 그러니까 나오미는 현실에서 아무런 희망을 찾지 못한다. 이러한 극단적 절망 상태를 나오미는 여호와와 손을 친 결과로 받아들인다(1:13b). 나오미는 여호와를 까닭 없이 폭력적인 하나님으로 인식한다. 나오미의 이러한 하나님 이해는 베들레헴에 도착한 직후에도 표현된다.

베들레헴 성문에서 자신을 떠들썩하게 맞이하는 베들레헴 여자들에게 나오미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라고 말하며, 한때 풍족하고 달콤했던 자신의 삶이 이제는 쓴 것과 빈털터리가 되어버렸다고 한탄한다(1:20-21). 나오미는 자신이 겪은 재앙을 하나님의 가혹한 처사로 간주한다. 나오미에게 여호와와는 잔인하고 폭력적인 전능자이다. 나오미가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고 하여 그녀의 귀향을 신앙적 결단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sup>26)</sup> 이야기 전개에 따르면 나오미는, 룯으로부터 보아스의 헤세드에 대하여 듣기 전까지 아무런 희망을 품지 않는다. 그때까지 나오미는 오직 집에 거하며 외국인 며느리의 이삭 줍기로 연명하는 무기력한 시어머니에 불과하다. 남편에 이어 두 아들을 잃은 상실 경험은 나오미의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신앙마저 흔들어 놓은 것이다.

6절의 동사 ‘일어나다’(קָוַם)는 사건의 전환과 행위자의 행동 의지를 나타낸다. 잇따른 불행과 재앙 속에서도 나오미로 하여금 주저앉지 않고 일어설 수 있게 한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돌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문이였다. 보아스가 소문을 듣고 룯을 선대한 데서 알 수 있듯이(2:11-12) 룯기에서 ‘소문’은 긍정적 행동의 발단이 된다.<sup>27)</sup> 엘리멜렉이 양식을 찾아 모압 땅으로 떠났듯이, 나오미도 양식을 찾아 베들레헴으로 돌

26) 반면 룯의 경우는 단순히 시어머니 봉양이라는 윤리 도덕적 행위 이상의 신앙적 결단으로 볼 수 있다. 오르바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고 룯은 “어머니의 백성”과 “어머니의 하나님”을 선택한다(1:15-16). 보아스도 룯이 유다로 온 일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신앙적 행위로 해석한다(2:12). 특히 보아스가 남편이 죽은 후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행한 룯의 행위를 두고 “네 아비와 어미와 친척의 땅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왔으며 칭찬하는데(2:11) 룯의 행위를, 하나님의 약속(창 12:1-3)에 따라 행한 아브라함에게 견주어 있다.

27) 고대 이스라엘 여성의 비공식 네트워크로서의 ‘소문’이 룯기에서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대하여 P. F. Esler, “‘All That You Have Done ... Has Been Fully Told to Me’: The Power of Gossip and the Story of Ruth”, *JBL* 137:3 (2018), 645-666 참고.

아온 것이다. 추수기에 돌아왔다는 사실(1:22)도 이를 지지해 준다. 나오미는 남편도 아들도 없이, 무엇보다도 어떤 희망이나 기대 없이 귀향한 것이다. 그러므로 룯기는 오그랑쪽박이 된 나오미의 인생이 어떻게 채워지는지, 하나님을 ‘치는 자’로 경험한 그녀의 신앙이 어떻게 회복되어 가는지를 추적하는 것이 바른 읽기와 해석이 될 것이다.

## 2.2. 룯기 2:7: 감독관의 말인가 룯의 말인가?

룯기 2장은 보아스에 대한 소개로 시작한다(2:1). 그러나 곧바로 초점은 룯에게로 이동한다. 모압 여인 룯은 나오미에게 밭으로 가서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 사람을 찾아 이삭을 줍겠다고 말하고 이에 나오미는 허락한다(2:2).

룯이 이삭을 줍기 위해 우연히 들어간 곳은 보아스의 밭이었다. 마침 보아스도 밭에 도착한다. 보아스는 추수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인사를 하고, 일하는 자들도 야훼의 축복으로 화답한다. 그런 다음 보아스는 옆에 있는 젊은 시종에게 낫선 여인의 정체를 묻는다. 시종은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2:6)라고 말한 뒤 룯의 부탁을 전한 다음 룯에 대한 자신의 평가도 덧붙인다(2:7). 2:7의 히브리어 본문은 룯기에서 가장 난해한 구절로서<sup>28)</sup> 그 자체로 의미가 통하지 않아 학자들은 저마다 판독을 시도한다. 우리말 성서 번역본을 비교해보면 내용적인 차이 하나가 확연히 눈에 띈다.

『개역한글』, 『개역개정』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표준』, 『새번역』

(그녀가) 일꾼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곡식단 사이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도록 허락해 달라고 하더니,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저렇게 서 있습니다. 아까, 여기 밭집에서 잠깐 쉬었을 뿐입니다.

28) 하반절(הַבֵּית הַמְּעוֹטָה וְהַבְּקָר וְהַבְּקָר מֵאֵן הַתְּעֹמֵד מֵאֵן הַתְּעֹמֵד) 구문의 다의성에 대하여 M. S. Moore, “Two Textual Anomalies in Ruth”, *CBQ* 59 (1997), 239-240 참고. R. G. Beattie, “A Midrashic Gloss in Ruth 2,7”, *ZAW* 89 (1977), 122-124는 미드라쉬 주석으로서 난외에 기록된 것이 나중에 본문으로 들어온 것으로 간주한다.

## 『공동』, 『공동개정』

(그녀가) 일꾼들이 거두면서 흘린 이삭을 뒤따르며 줍게 해달라고 사정하더군요. 아침에 와서 지금까지 앉지도 않고 이삭을 줍고 있음/있습니다.

『개역한글』과 『개역개정』, 그리고 『공동』과 『공동개정』에 따르면, 룯은 감독관에게 이삭을 줍게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감독관의 허락 아래 룯은 아침부터 지금까지 거의 쉬지 않고 열심히 이삭을 줍고 있는 상황이다. 이삭을 줍는 룯의 모습이 남달라 보아스의 시선을 사로잡았을 것이다. 『표준』과 『새번역』은 좀 애매하긴 하지만 “저렇게 서 있다”는 표현으로 보면 룯은 이삭을 줍게 해달라고 부탁한 후 허락을 받기 위하여 상당 시간 서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말하는 듯하다. 이삭 줍고 있는 사람들과는 달리 룯의 서 있는 모습은 특히나 보아스의 눈에 잘 띄었을 것이다. 이삭줍기는 율법이 규정하는 가난한 자와 나그네의 권리이다(레 19:9; 신 10:18; 24:19이하). 만약 룯이 허락을 받기 위해 서 있는 것이라면 일반적인 이삭줍기 관행 이상을 요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룰은 보아스가 도착하기 전부터 이미 이삭을 줍기 시작한 것인가, 아니면 허락을 받기 위해 서있는 것인가?<sup>29)</sup> 아니면 또 다른 상황을 말하는가?<sup>30)</sup> 또 ‘집’은 주택을 말하는가<sup>31)</sup> 아니면 농막 같은 ‘밭집’을 말하는가? 룯이 감독관에게 했다고 하는 말을 자세히 살펴보자.

감독관이 전하는 룯의 말(אֲלֶקְטָהּ נָא וְאֶסְפְּתִי בְעֵמְרִים אַחֲרַי הַקֹּצְרִים)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동사 다음에 나오는 부사구 בְעֵמְרִים이 이삭 줍는 장소(곡식 단에서)를 말하는지 아니면 주운 이삭을 처리하는 방식(곡식 단으로)을

29) 이 방향으로 김의원, 민영진, 『사사기 룯기』, 대한기독교서회 창립 100주년 기념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738; 김지찬, 『룯기,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본문주해에서 설교까지』, 299.

30) M. Carasik, “Ruth 2:7: Why the Overseer Was Embarrassed”, *ZAW* 107:3 (1995), 493-494는 보아스가 룯에게 말한 8절과 9절의 내용으로부터 완전히 다른 정황을 추론한다. (1)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2) 내 밭을 떠나지 말고 내 여종들과 함께 있으라는 8절의 말은 보아스가 도착했을 때 룯이 떠나는 상황을 말해주며, (3) 여자들의 밭을 떠나지 말라. (4) 남자들이 너를 건들지 않게 하겠다는 말로부터 남자 일꾼들이 룯에게 뭔가 불편한 행동을 해서 룯이 떠날 수밖에 없었으며, (5) 목이 마르거든 일꾼들이 길어온 것을 마시라는 말로부터 물을 마시려는 룯에게 남성 일꾼들이 어떤 불편한 행동을 했을 것이며, 그 결과 룯이 밭을 떠나고 있는 모습을 보아스가 보게 되었다는 것이다.

31) D. Lys, “Résidence ou repos? Notule sur Ruth ii 7”, *VT* 21 (1971), 497-501은 마지막 문장 מָעַט שָׁבִיתָ הַבַּיִתָּהּ לְעַמְּךָ לְמַעַן לֵאמֹר “This (field) has been her dwelling – The house has meant little.”(여기가 그녀의 거처입니다. 집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로 번역함으로써 나오미의 집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말하는지에 관한 것이다.<sup>32)</sup> 이 의미를 알기 위해 추수 관행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 보인다. 고대 이집트 벽화에 묘사된 추수 장면에 따르면 곡식을 베는 남자들 뒤에서 여자들이 단으로 묶는다(시 129:7 참고).<sup>33)</sup> 곡식 단은 선선한 타작마당으로 옮겨지고,<sup>34)</sup> 가난한 자들은 추수 기간에 추수가 끝난 밭을 돌아다니며 남은 이삭을 줍는다. 7절이 만약 추수꾼의 작업이 끝난 곳에서 이삭을 ‘주워 단으로 모으겠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굳이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을 것이다.<sup>35)</sup> 그러나 **וַיִּקְרַע**이 이삭을 줍고 모으는 장소(“곡식 단 사이에서”)를 의미한다면 그것은 아직 추수가 한창인 곳에서 이삭을 줍고 모으게 해달라는 요청이 된다. 감히 그런 특권을 요구하다니 그것도 외국인! 누가 봐도 당돌한 요구라 아니할 수 없다.

부쉬(F. W. Bush)는 룿이 실제로 그리했다면 이삭을 주으러 나온 다른 가난한 여인들의 “적대감을 야기했을 것”이라고 말하고, 보아스가 나중에 룿에게 ‘곡식 단에서’ 이삭 줍게 허락한 것(2:15)과 어울리지 않음도 지적한다.<sup>36)</sup> 후르비츠(A. Hurvitz)는 감독관이 주인인 보아스가 일꾼들의 쉼터로 마련해 준 ‘집’에 룿을 머물게 해준 일로 보아스의 눈치를 보느라 두서없이 말하고 있다고 해석한다.<sup>37)</sup> 반면 그로스만(J. Grossman)은 감독관의 말이 상당히 과장되어 있다고 보는데 그의 본문 관찰은 언급할 만하다. 일반적으로 여기서 사용된 두 개의 동사 ‘줍다’(טָקַף)와 ‘모으다’(קָטַף)는 ‘주워 모으다’라는 연속적 행위로 이해된다.<sup>38)</sup> 그에 반해 그로스만은 이 두 동사에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분명한 의미 차이가 있다는 것을 민수기 11장을 들어 주장한다. 광야 여정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에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자 백성은 만나는 ‘줍고’(8절), 메추라기는 “그 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모으다’(32절). 이를 근거로 그로스만은 ‘모으다’는 행위는 ‘줍다’와는 달리 탐욕으로 닥치는 대로 쓸어 담는 의미가 담겨 있음을 밝힌다.<sup>39)</sup> 그로스만은 집을 나서며 나오미에게 한 룿의 말

32) R. D. Holmstedt, *Ruth: A Handbook on the Hebrew Text*, 116.

33) I. Fischer, *Rut*, 162; 김지찬, 『룿기,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본문주해에서 설교까지』, 295-297.

34) F. W. 부쉬, 『룿기·에스터』, 191; I. Fischer, *Rut*, 162.

35) T. Linafelt, *Ruth*, 32.

36) F. W. 부쉬, 『룿기·에스터』, 191.

37) A. Hurvitz, “Ruth 2,7 – ‘A Midrash Gloss?’”, *ZAW* 95 (1983), 121-123; J. Schipper, *Ruth*, 199 참고.

38) J. Schipper, *Ruth*, 119. 우리말 성서에는 두 개의 동사 ‘줍다’(טָקַף)와 ‘모으다’(קָטַף)가 ‘줍다’로만 번역되어 있다.

39) J. Grossman, “‘Gleaning among the Ears — Gathering among the Sheaves’: Characterizing the

이나(2:2), 내레이터의 종합적 진술(2:17)에 미루어 감독관의 말은 룯의 말을 직접 인용한 것이 아니라 룯에 대한 그의 시각의 반영이라는 결론을 내린다.<sup>40)</sup> 룯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것이다. 룯에 대한 감독관의 부정적인 시각은 특히 그가 룯을 ‘룯’이나 ‘나오미의 며느리’가 아니라 민족적으로 규정하며, 그것도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2:6)라고 그녀의 출신 지역을 거듭 언급하면서 사람 자체가 아니라 외국인이라는 사회적 지위를 강조하는 데서<sup>41)</sup> 확인된다.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감독관이 룯을 서술하는 7b절은 ‘룯이 거의 쉬지 않고 온종일 일하고 있다’는 의미를 띠는 것이다. 이 말은 언뜻 감독관이 룯의 부지런함을 칭찬하는 것 같지만 실은, 그로스만에 따르면, 주인인 보아스가 모압 여자의 이삭줍기를 제지해 주기를 바라는 의도에서 한 말이다.<sup>42)</sup> 이삭 줍는 안전한 공간은 물론 물까지 제공해 준(2:8-9) 보아스에게 룯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어찌하여 이렇게 분에 넘친 호의를 그것도 외국인 여자에게 베풀 수 있느냐’며 자신이 외국인이라는 점을 주지시킨 사실(2:10)은 보아스의 친절이 일반적이지 않은 것임을 시사하는 동시에 당시 이방 여인의 사회적 위상이 어떠한지를 여실히 보여 주기도 한다.<sup>43)</sup> 보호자 없는 외국인 여성에게 성추행은 다반사였을 것이다(2:9a; 2:22 참고).<sup>44)</sup> 보아스가 시종들에게 룯으로 하여금 “곡식 단 사이에서<sup>45)</sup> 줍게 하라”(2:15)고 하거나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라”(2:16)고 지시할 때마다 “그녀를 책망하지 말라”(2:15), “그녀를 꾸짖지 말라”(2:16)는 말을 덧붙인 사실도 보아스의 발에서 이삭 줍는 이방 여인 룯에 대한 일꾼들의 달갑지 않은 시선을 방증해준다. 이방인 룯에 대한 비호의적 시각은 비단 감독관만의 것은 아닐 것이다. 그의 태도는 베들레헴 사회를 대변한다 할 수 있을 것이다.

Image of the Supervising Boy (Ruth 2)”, *JBL* 126 (2007), 708.

40) *Ibid.*, 704, 707, 716.

41) R. D. Holmstedt, *Ruth: A Handbook on the Hebrew Text*, 115; 이사야, “모압 여인의 하나님: 룯기 1:1-22에 대한 주석적 연구”, 231.

42) J. Grossman, “Gleaning among the Ears — Gathering among the Sheaves”, 711.

43) 김의원, 민영진, 『사사기/룯기』, 740은 룯이 보아스에게 “모세의 계명을 어기고 있음을 은연중 지적하고 있다”고 주석하는데 이는 본문 흐름에 맞지 않아 보인다.

44) D. Shepherd, “Violence in the Fields? Translating, Reading, and Revising in Ruth 2”, *CBQ* 63 (2001), 444-463; D. Shepherd, “Ruth in the Days of the Judges: Women, Foreignness and Violence”, *Biblical Interpretation* 26:4-5 (2018), 528-543.

45) 2:7의  $\text{בְּתוֹכָם}$ 과는 달리  $\text{בְּתוֹכָם}$ 이다.

### 2.3. 룯기 3:16: 나오미의 회복과 개입

룯의 부지런함과 보아스의 호의 덕분에 룯은 일반적인 이삭줍기를 통해 주울 수 있는 양보다 훨씬 많은 양의 곡식과 또 넉넉히 먹고 남은 음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온다. 룯은 나오미에게 주운 이삭을 보여주고 싸온 음식을 내놓는다(2:17-18). 그 모습에 나오미는 몹시 놀라 어디서 주웠느냐는 질문을 연발하며 그 은인에게 일반적인 축복을 한다.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2:19) 그러더니 그 은인이 다름 아닌 ‘보아스’라는 말에 나오미는 전심으로 여호와와 복을 구한다.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2:20) 1:9에 비추어 볼 때 나오미가 누군가를 위해 여호와와 복을 구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녀의 신앙이 회복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표지이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무를 자 중의 하나”(2:20)라는 사실을 이제야 며느리에게 알린다는 것도 나오미의 변화를 나타낸다. 그런 친척이 존재했지만, 나오미는 그동안 아무런 희망도, 기대도 하지 않았던 것이다. 풍성한 음식과 양식을 본 나오미는 “그가 살아 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에게 그의<sup>46)</sup> ‘헤세드’를 저버리지 않았다”(2:20, 사역)라고 말하며 그 동안 쓰디쓴 경험만을 계속했던 자신에게 이제 하나님의 은총이 시작되었음을 예감한다. 룯이 가져온 풍성한 양식과 음식은 분명히 나오미에게 희망의 사인(sign)으로 작용한 것이다.<sup>47)</sup> 룯이 나오미에게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2:21)라고 한 보아스의 호의를 전하자 나오미는 룯의 안전을 염려하며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라”(22절)라고 조언한다. 아침에 룯이 이삭을 주우러 나갈 때 룯의 안전에 대한 말 한마디 없었던 것을 고려하면, 이제야 나오미의 도덕적 민감성이 되살아나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48)</sup> 트라우마가 극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나오미는 사회적 메커니즘 속에서 자신이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3장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다.

46) 여기서 ‘그’는 히브리어 구문상 여호와일 수도 있고 보아스일 수도 있다. 그러나 나오미가 일찍이 두 며느리에게 ‘그들이 산 자(나오미)와 죽은 자들에게 헤세드를 행했다’(1:8)고 한 말로 볼 때 여기서도 여호와와 ‘헤세드’보다는 보아스의 ‘헤세드’를 가리킬 공산이 크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룯에게 율법의 요구를 넘어서는 ‘헤세드’를 행한 사실로부터 그가 ‘기업을 무를 자’로서 ‘죽은 자들’에게도 법의 요구를 넘어서는 ‘헤세드’를 행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다. Yoo-ki Kim, “The Agent of *hesed* in Naomi’s Blessing (Ruth 2,20)”, *Biblica* 95 (2014), 589-601.

47) B. Mangrum, “Bringing ‘fullness’ to Naomi: Centripetal nationalism in the Book of Ruth”, *HBT* 33 (2011), 62-81.

48) D. N. Fewell, “Space for Moral Agency in the Book of Ruth”, 90.

모압 땅에서 돌아올 때 며느리들에게 각자 자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찾으라고 권하였던(1:9) 나오미는 이제 며느리 룯을 위해 ‘안식할 곳’을 자신이 적극적으로 찾겠노라고 말한다(3:1). 나오미는 회복되어 은혜를 찾는 자가 되어 있다. 나오미는 이를 수확기가 지나기 전에 수행하고자 한다. 그녀는 보아스가 ‘우리의 친족’, 즉 나오미와 룯의 친족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주지시키면서 보아스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름”(3:2) 것이라고 일러 준다. 이어서 룯의 행복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자신이 직접 고안한 전략도 말해 준다(3:3-4). 룯은 나오미의 지시에 따라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으로 내려간다.

동틀 무렵 집으로 들어오는 룯을 본 나오미는 **מי אתך**, 직역하면 “너는 누구냐, 내 딸아!”(3:16)라고 말한다. 우리말 성서 번역본은 모두 다 “어찌 되었느냐”라고 옮기고 있다.<sup>49)</sup> 이는 룯이 시어머니의 전략을 제대로 실행해 냈는지, 보아스는 또 나오미의 믿음대로 행동했는지에 대한 나오미의 궁금증을 담은 번역이다. 반면 그레이(J. Gray)는 나오미의 질문에는 룯의 부재를 숨기려고 의도가 있다고 해석한다.<sup>50)</sup> 보아스가 룯과의 만남에 대해 아무도 알지 못하기를 바라는 것(3:14)과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다. 존스(E. A. Jones III)는 나오미의 질문이, 시력이 약한 이삭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자에서로 가장하고 온 야곱에게 한 반응과 동일한 형태임을 관찰한다. “너는 누구냐, 내 아들아”(창 27:18)라는 이삭의 말에서 ‘내 아들아’는 목소리 때문에 에서임을 확신하지 못함을 나타내는데<sup>51)</sup> 그와 같이 나오미의 질문도 미명에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여 나온 질문이며, 룯인지 확신하지 못한 이유는 며느리가 보아스와 밤을 지새리라 기대했거나, 아니면 위험을 무릅쓴 모험이었기에 룯의 이른 귀가에 놀랐다는 것이다.<sup>52)</sup> 필자는 나오미의 질문이 타작마당에서 보아스가 룯에게 한 질문과 같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타작마당에서 잠을 청한 보아스는 한밤중에 자신의 발치에서 뭔가를 느끼고 깜짝 놀라 “당신 누구요?”(**מי אתך**)라고 묻는데(3:8-9) 그것은 놀람으로 인한 반사적 질문이었다. 미명에 돌아오는 룯을 보고 나오미가 “당신 누구요?”라고 물으며 “내 딸”이라고 불렀다면, 이는 룯의 정체가 아니라 룯의 모습에 대한 놀람에 더 무게가 실려 있음을 말해준다. 나오미는 왜 놀랐을

49) 여러 그리스어 사본들은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이 방향의 번역을 제시한다. E. A. Jones III, “‘Who Are You, My Daughter [מי אתך]?’ A Reassessment of Ruth and Naomi in Ruth 3”, *CBQ* 76-4 (2014), 653-654 참고.

50) J. Gray, *Joshua, Judges and Ruth*, NCB (London: Nelson, 1967), 419.

51) E. A. Jones III, *Reading Ruth in the Restoration Period – A Call for Inclusion*, 43.

52) *Ibid.*, 44.

까? 스톤(T. Stone)의 해석이 매우 인상적이다. 미명에 겉옷에 곡식을 가득 안고 들어오는 룯의 모습이 마치 임신한 여자와 같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sup>53)</sup> 여기서 곡식을 안고 오는 룯의 모습은 나오미의 ‘텅 빔’을 채워줄 자손의 출생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룯은 밤에 있었던 모든 일을 나오미에게 들려주고, 겉옷 가득 채운 보리에 대해서는 “빈 손으로(בְּיָדַי) 네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는 보아스의 배려로 설명한다(3:17). 나오미가 귀향 직후 베들레헴 성문에서 여인들에게 여호와께서 자신을 “비어”(בְּיָדַי) 돌아오게 하셨다고 한탄한 것에 비추어 보면(1:21) 룯이 보아스의 말을 인용했다기보다는 해석한 말로 보인다.<sup>54)</sup> 이는 첫 장에서 보여주는 나오미의 ‘텅 빔’이 보아스가 담아준 풍성한 곡식으로 채워질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sup>55)</sup> 아무리 많은 양의 곡식이라도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의 공허함을 채우지는 못할 것이다. 곡식을 안고 오는 룯의 모습이 임신한 여자의 모습으로 보였다는 스톤의 해석을 받아들이면 나오미의 ‘텅 빔’은 단순히 곡식으로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자손을 통해 채워질 것을 상징한다 하겠다. 여기서 분명해진 것은 나오미의 ‘텅 빔’이 ‘충만’으로 전환되는 것은 다름 아닌 룯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를 확증하듯 4장은 나오미의 믿음대로 보아스가 성문 공적 자리를 통해 기업 무르기와 룯을 아내로 삼는 일(4:9-10)을 확정한다. 룯과 보아스는 결혼하고, 아들이 태어나자 이웃 여인들은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4:17)고 선언한다. 나오미가 한탄하던 베들레헴 성문이 마침내 온 공동체가 축복하고 찬양하는 곳으로 변모한다(1:19-21; 4:11-17).

### 3. 나가는 말

본고는 세 구절에 대한 우리말 성서 번역을 재고함으로써 룯기의 이해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룯기 1:9는 대체로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하는 축복으로 번역되어 있다. 홈스테드는 8b-9a절을 파격구문으로 간주하고, 쉬퍼는 이 파격이 수사적으로 나오미가 하나님의 축복을 빌다가 갑자기 실용적인 조언으로 바

53) T. Stone, “Six Measures of Barley: Seed Symbolism in Ruth”, *JSOT* 38 (2013), 198.

54) J. Grossman, “Gleaning among the Ears — Gathering among the Sheaves”, 706; 유연희, “글로벌시진 룯의 달콤살벌한 성공기”, 67 참고.

55) B. Mangrum, “Bringing ‘Fullness’ to Naomi: Centripetal Nationalism in the Book of Ruth”, 72.

꾼다는 점을 밝힌다. 이를 기반으로 본고는 8-9절은 나오미의 ‘텅 빔’이 단순히 남편과 두 아들의 죽음에 의한 상실에만 한정되지 않고 그녀의 심리적, 정신적, 신앙적 상태와도 연관되어 있음을 주장한다. 삶의 부정적인 경험은 신앙에도 영향을 미친다. 1:9는 또한 나오미의 총체적 ‘텅 빔’이 어떻게 ‘충만’으로 전환되는지를 추적하는 것이 룯기의 바른 읽기 방향이라는 것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2) 일반적으로 룯기에 나타난 베들레헴은 사사기가 보여주는 사회와는 대조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룯기 2:7은 베들레헴의 다른 모습을 엿보게 해준다. 이삭 줍는 밭에서 이방 여인은 성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베들레헴 사회는 이방인에 대하여 비호의적임을 보여준다. 룯기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1:1)로 시작함으로써 룯기가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며 동시에 베들레헴 사회가 사사 시대의 일부였음을 말해준다.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사사 시대와 크게 다른 사회는 아니었던 것이다.

(3) 3:16은 나오미의 전략을 수행하고 새벽에 돌아온 룯에게 나오미가 하는 말이다. 이는 룯의 정체를 묻는 말이 아니라 그녀의 모습에 놀람을 드러내는 표현으로 나오미의 ‘텅 빈’ 인생이 어떤 방식으로 채워지는지를 시사한다. 보아스가 담아 준 넉넉한 곡식은 나오미의 물질적인 ‘텅 빔’을 채우는 것을 넘어 궁극적으로 자녀의 출산을 통해 채워짐을 예시한다. 또한 룯기는 나오미의 ‘텅 빔’이 나오미에 의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방 여인 며느리 룯에 의해 채워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룰기는 나오미의 인생은 물론 베들레헴 사회가 변모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나오미와 룯이 이삭을 주워 배불리 먹고, 과부였던 룯이 아이를 낳는다. 늙은 나오미가 아기를 품에 안고 양육하며, 사람들은 서로를 축복하고 선행을 칭송하며 하나님을 찬양한다. 룯기는 베레스의 계보(4:18-22)로써 다윗을 새 시대를 열 인물로 제시하면서<sup>56)</sup> 이상적인 새 시대 구현에 결정적인 것은 이방인에 대한 태도라고 말한다. 이로써 룯기는 포로기 이후 에스라-느헤미야에 나타나는 이방여인과의 연혼이라는 시대적 문제에 답변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이상적인 사회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주는 책이라 할 수 있다.

56) 베레스의 계보(4:18-22)는 창세기의 계보(창 5:3-29; 11:10-26)처럼 열 세대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시대적 구분을 나타낸다. Z. Ron, “The Genealogical List in the Book of Ruth: A Symbolic Approach”, *JBQ* 38 (2010), 85-92.

<주제어>(Keywords)

룻기 1:9; 2:7; 3:16, 룻, 나오미, 보아스, 이방인과의 연혼.

The Book of Ruth, Ruth 1:9; 2:7; 3:16, Ruth, Naomi, Boaz, mixed marriage.

(투고 일자: 2023년 7월 31일, 심사 일자: 2023년 8월 26일, 게재 확정 일자: 2023년 10월 13일)

<참고문헌>(References)

- 기민석, “다윗 인생의 서곡, 롯기와 신의(信義)”, 『생명과말씀』 13 (2015), 13-34.
- 김의원, 민영진, 『사사기/롯기』, 대한기독교서회 창립 100주년 기념,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 김지찬, 『롯기,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본문주해에서 설교까지』,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8.
- 박유미, “여성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한 사사기 19-21장과 롯기 비교 연구”, 『구약논집』 (2020), 77-107.
- 부쉬, F. W., 정일오 옮김, 『롯기·에스더』, WBC, 서울: 솔로몬, 2007.
- 엄태항, “롯기 도입부(1:1~5)의 기근과 모압 이주 주제가 롯을 가모장 (matriarch)으로 서술하는 문학적 기능성”, 『성침논단』 13 (2022), 107-143.
- 유연희, “글로벌시민 롯의 달콤살벌한 성공기”, 『한국기독교신학논총』 62 (2009), 57-78.
- 이샤야, “모압 여인의 하나님: 롯기 1:1-22에 대한 주석적 연구”, 『신학논단』 69 (2012), 219-242.
- 이일레, “롯기 1:8 하반절에 나타난 롯의 선행의 성격과 אִישׁוּר כְּאִשָּׁר의 우리말 번역을 위한 제언: 롯기 3:10의 רָחֵם 이해를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31 (2012), 24-46.
- 이충열, “나오미의 신앙과 좌절 — 롯기 1:6-7, 19-22에 대한 상호본문비평적 연구”, 『신학사상』 197 (2022), 63-86.
- Avnery, O., “On the Threshold: Liminality in the Stories of the Concubine of Gibeah and Ruth”,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46:2 (Dec 2021), 230-248.
- Baylis, C. P., “Naomi in the Book of Ruth in Light of the Mosaic Covenant”, *Bibliotheca Sacra* 161 (2004), 413-431.
- Beattie, D. R. G., “A Midrashic Gloss in Ruth 2,7”, *Zeitschrift für Alttestamentliche Wissenschaft* 89 (1977), 122-124.
- Beattie, D. R. G., “Ruth 2,7 and Midrash”, *Zeitschrift für Alttestamentliche Wissenschaft* 99 (1987), 422-423.
- Bertrand Z., “Zu Rut 2,7”, *Zeitschrift für die alttestamentliche Wissenschaft* 58:1-2 (1940-1941), 156-158.
- Brenner, B., “Naomi and Ruth”, *Vetus Testamentum* 33 (1983), 385-397.
- Campbell, Jr. E. F., *Ruth*, AB 7, New York et al.: Doubleday, 1975.
- Carasik, M., “Ruth 2,7: Why the Overseer Was Embarrassed”, *Zeitschrift für*

- Alttestamentliche Wissenschaft* 107:3 (1995), 493-494.
- Dekker, J. and Dekker, A. H., “Centrality in the Book of Ruth”, *Vetus Testamentum* 68 (2018), 41-50.
- Esler, P. F., ““All That You Have Done ... Has Been Fully Told to Me’: The Power of Gossip and the Story of Ruth”, *Journal for the Biblical Literature* 137:3 (2018), 645-666.
- Fewell, D. N., “Space for Moral Agency in the Book of Ruth”, *JSOT* 40:1 (2015), 79-96.
- Fischer, I., “Rezeption von Recht und Ethik zugunsten von Frauen: Zu Intention und sozialgeschichtlicher Verortung des Rutbuches”, M. Oeming ed., *Theologie des Alten Testaments aus der Perspektive von Frauen, Beiträge zum Verstehen der Bibel 1*, Münster; Hamburg; London: LIT, 2003, 109-125.
- Fischer, I., *Rut*, HThKAT, Freiburg; Basel; Wien: Herder, 2001.
- Gage, W. A., “Ruth upon the Threshing Floor and the Sin of Gibeah: A Biblical Theological Study”,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51:2 (Fall 1989), 369-375.
- Geiser, F. J., “Which Bethlehem? A Tale of Two Cities”, *Word & World* 33:4 (2013), 349-356.
- Gray, J., *Joshua, Judges and Ruth*, NCB, London: Nelson, 1967.
- Holmstedt, R. D., *Ruth: A Handbook on the Hebrew Text*, Waco: Baylor University Press, 2010.
- Hubbard, R. I., *The Book of Ruth*, NICOT, Grand Rapids, MI: William B. Eerdmans, 1988.
- Hurvitz, A., “Ruth 2,7 — ‘A Midrash Gloss?’”, *Zeitschrift für Alttestamentliche Wissenschaft* 95 (1983), 121-123.
- Jones III, E. A., *Reading Ruth in the Restoration Period – A Call for Inclusion*, LHB/OTS 604, London et al.: Bloomsbury, 2016.
- Jones III, E. A., ““Who Are You, My Daughter (יְהִי־נָא בְּרַחֲמֶיךָ)?” A Reassessment of Ruth and Naomi in Ruth 3”, *Catholic Biblical Quarterly* 76 (2014), 653-664.
- Kim, Yoo-ki, “The Agent of hesed in Naomi’s Blessing (Ruth 2,20)”, *Biblica* 95 (2014), 589-601.
- Linafelt, T., *Ruth*, Berit Olam, Collegeville, MN: Liturgical Press, 1989.
- Lys, D., “Résidence ou repos? Notule sur Ruth ii 7”, *Vetus Testamentum* 21:4 (1971), 497-501.

- Mangrum, B., “Bringing ‘Fullness’ to Naomi: Centripetal Nationalism in the Book of Ruth”, *Horizons in Biblical Theology* 33:1 (2011), 62-81.
- Moore, M. S., “To King or Not to King: A Canonical-Historical Approach to Ruth”, *Bulletin for Biblical Research* 11:1 (2001), 27-41.
- Moore, M. S., “Two Textual Anomalies in Ruth”, *Catholic Biblical Quarterly* 59 (1997), 234-243.
- Ron, Z., “The Genealogical List in the Book of Ruth: A Symbolic Approach”, *Jewish Bible Quarterly* 38 (2010), 85-92.
- Schipper, J., *Ruth.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AB 7D, New Haven;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16.
- Schipper, J., “The Syntax and Rhetoric of Ruth 1:9a”, *Vetus Testamentum* 62 (2012), 642-645.
- Shepherd, D., “Ruth in the Days of the Judges: Women, Foreignness and Violence”, *Biblical Interpretation* 26,4-5 (2018), 528-543.
- Shepherd, D., “Violence in the Fields? Translating, Reading, and Revising in Ruth 2”, *Catholic Biblical Quarterly* 63 (2001), 444-463.
- Stone, T. J., “Six Measures of Barley: Seed Symbolism in Ruth”,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38 (2013), 189-199.
- Zenger, E., *Das Buch Ruth*, ZBK.AT 8, Zürich: TVZ, 1986.

<Abstract>

**From Emptiness to Fullness:  
Reconsidering the Korean Translations of Ruth 1:9; 2:7; 3:16**

Hee-Sook Bae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The Book of Ruth has four chapters, but offers multiple perspectives. First, the fact that the book is set in Bethlehem and David is mentioned at the end of the narrative (4:17b) and in the genealogy (4:18-22) provides a context for reading it from David’s point of view. According to this interpretation, the Book of Ruth is about Israel not Ruth and Naomi. Second, unlike other biblical books, the Book of Ruth focuses on women’s lives and relates events from their perspective; thus, it is viewed as a story of women building the “house of Israel” during a time of crisis. It is ambiguous in this reading whether Naomi or Ruth is the protagonist. Thirdly, the Book of Ruth makes references to or allusions to other Old Testament texts; consequently, it can be read from a canonical perspective by comparing them.

This article reconsiders the Korean translations of Ruth 1:9; 2:7; 3:16 in an effort to enhance understanding of the Book of Ruth.

(1) Naomi urges her two daughters-in-law to return to Moab while traveling from Moab to Bethlehem. Naomi’s unanticipated advice in 1:9, following her request for YHWH’s favor, indicates that the loss of her husband and two sons has diminished her faith in God. Thus, 1:9 provides a reading orientation for the Book of Ruth, namely, to investigate how Naomi’s initial emptiness is filled.

(2) The first phrase of the Book of Ruth positions it in the time of the Judges. In general, intertextual analysis reveals that the Book of Ruth depicts Bethlehem differently from the Book of Judges. In Ruth 2:7, however, the words of Boaz’s field overseer disclose hostile attitudes toward Ruth and her vulnerability to sexual violence in Boaz’s fields. Bethlehem was not a perfect community from the beginning.

(3) Naomi’s question, “Who are you, my daughter?” in Ruth 3:16, is not a query about Ruth’s identification but rather a reflection of her surprise at seeing Ruth enter with her grain-filled apron. This image of a pregnant woman

symbolizes the filling of Naomi's emptiness through Ruth's birth of a son. In this manner, the book suggests that Ruth, Naomi's foreign daughter-in-law, facilitates Naomi's transformation from an initial state of emptiness to one of fullness.

The Book of Ruth depicts not only Naomi's transformation from "emptiness" to "fullness" but also Bethlehem's transformation from hostility to benediction toward the foreign woman Ruth. The catalyst for this transformation was Boaz. Therefore, the Book of Ruth is not only a response to the issue of mixed marriage that appears in Ezra and Nehemiah after the exile but also a vision of an ideal society. A welcoming attitude toward foreigners is essential for the dawn of a new era, according to the Book of Ruth.